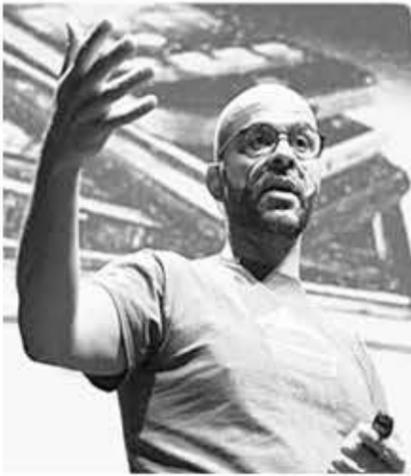


“AI 앞에서 CEO도 안전하지 않다” 구글 임원 출신 경고... “일자리 창출은 거짓말” 주장



▲ 모 가우답 전 구글 X 최고비즈니스책임자, 사진=grupobcc.com

모 가우답 전 구글 X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가 인공지능(AI)이 고위 임원부터 신입 사원까지 모든 이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의 혁신 연구소였던 구글 X에서 인간이 직면한 에너지, 기후 변화, 인터넷 접근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던 가

우답은 최근 팟캐스트 'CEO의 일기'에 출연해 "AI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생각은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AI 스타트업 '엠마러브'를 예로 들며, 예전이라면 350명의 개발자가 필요했을 앱을 단 세 명이 AI의 도움으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테크 산업에 몸담아온 그는 이제 영상 편집자, 팟캐스터, 임원 등 인간 중심의 직업조차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는 CEO 역할조차 인간보다 더 잘할 것"이라며 "무능한 CEO 대부분은 결국 AI로 교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우답은 베스트셀러 '무서운 똑똑함: 인공지능의 미래와 당신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 (Scary Smart)의 저자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만이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들조차 영원히 안전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업계 리더들은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억만장자 마크 쿠반과 쟈슨 황은 AI 기술을 배우고 소프트웨어 스킬을 강화하는 것이 직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쿠반은 어린이를 위한 무료 AI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황이 이끄는 기업은 현재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인 칩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모두 이메일 작성, 초안 생성, 의학적 조언 수집 등 일상 업무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1%(미국은 48%)가 AI로 인해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지만, 77%는 직원 재교육을 통해 AI와 협업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47%는 감소하는 직무에서 다른 역할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다.

즉, 지금 당장 인간을 대체할 로봇으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AI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충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가우답은 이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 취미 생활, 자선 활동, 직업 외적 정체성을 발견할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는 하루 중 20시간을 일로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일이 곧 존재 이유라는 인식은 자본주의가 만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가우답은 AI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권력과 탐욕, 자아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에게 AI가 잘못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윤리적인 규제와 책임 있는 사용을 촉구했다.

7월 주택 매매계약 15% 취소 모기지 소폭 상승 영향, 계약 체결도 줄어

7월 기존 주택 매매 계약이 전달보다 줄어들고 계약 취소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부동산중개업협회(NAR)에 따르면 7월 잠정 판매 지수는 6월 대비 0.4%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7% 증가했다.



▲ 7월 기존 주택 매매 계약 취소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했다. 사진=shutterstock

7월 들어 모기지 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7월 초 6.67%에서 중순 6.85%로 올랐다가 말에는 6.75%로 마감했다. 다만 8월 들어 금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내려 현재는 6.51% 수준이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운은 "모기지 금리, 주택 구입 여력, 매물 상황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들은 여전히 신중하다"며 "주택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소비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결코 성급히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약 취소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부동산중개업체 레드핀은 7월 주택 매매 계약의 15%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레드핀이 201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지역에서 취소율이 높았다. 도시별로는 샌안토니오 22.7%, 포트로더데일 21.3%, 탬파 19.5%에 달했다. 레드핀은 구매자들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망설임(콜드 피

트' 때문에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NAR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 3개월간 주택 구매자 유입이 늘 것이라고 예상한 중개인은 1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7월 펜딩 세일스는 동북부와 중서부에서 하락했고 남부는 포함, 서부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리얼터닷컴의 제이크 크리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월은 전반적으로 '잔인한 여름'이었다"며 "구매자는 여전히 높은 가격과 금리에 눌려 있고, 판매자들은 기대치를 조정하지 않아 주택시장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